5.31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3. 후보자상호토론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상호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님들은 후보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 상호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 1명의 다른 후보에게 후보를 지정하고 질문하면 질문 받은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각 후보는 2번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할 주제를 가지고 하되 질문시간은 1분 30초, 답변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면 각 후보는 9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시간은 1분30초로 1분20초가 지나면 초인종이 울리고, 또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고 사회자가 발언을 제재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3분으로 2분 50초가 지나면 초인종이 울리고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제지합니다.

이번에는 서장원 후보께서 질문대상 후보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우선 박 후보께서는 가산 군내지역에 신도시를 유치하였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 생각에는 가산 군내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지역에 열악한 교통이나 산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회자** : 박윤국 후보님 차례입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우리 서장원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잘못 알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신도시 사업이 가산 군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산면 감암리를 비롯해서 군내면 신북면 일대가 신도시 320만평 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좀전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경기도를 통과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입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를 통과해서 최종심의는 5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집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장만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16만 시민의 노동력이 과연 산업단지가 최첨단산업단지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경기북부지역에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0인 이상 되는 모든 기업을 수도권으로부터 떠나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장총량제라는 걸 만들어서 10만평 이상은 절대로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입지 승인을 한다할지라도 이런 공장총량제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을 법을 알고 뭘 유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부터 뭘 알아야 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첨단산업 유치라는 것은 저희가 다만 한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걸 갖고 저희들이 현재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고, 금년도에 OLED산업단지, 말씀드리자면 국가 10대 동력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파주에 있는 LCD산업이고 3대 동력산업이 OLED산업입니다. OLED산업단지가 이미 포천시가 13만평을 유치하는 것으로 금년에 돼 있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가 약 15만평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고, 가구연구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최첨단의 가구산업단지들이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창출하게 되고, 또 이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5만 이하의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도시 산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윤국 후보님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저는 서장원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장원 후보님께서 과거에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내시고 의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좀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택지개발에 대한 송우리에 19만8천평의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교통난을 해소 안하고 집부터 지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서장원 후보께서는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 택지개발을 시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왜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승인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특별법,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답변을 지금 서장원후보께 요청하신거지요? 하십시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우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장시절에 우리가 의결해준 사항인데 교통난 해소는 예측하지 못하고 해줬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천군이 포천시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포천시가 되어서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또 교통이 어디가 가장 정체되는지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하송우리에서 축석구간이 가장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결국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서 인구가 이동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320만평의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 되겠구요. 그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은 아마 잘못 오해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가 면지역에, 북쪽에 위치한 면지역에 우리 주민들 상당수 부분이 젊은 분들이 빠져나가서 거의 노인층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 인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아마 큰 고민을 하면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향후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320만평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어떤 공청회를 하셨는지, 또 1, 2차 통과를 받았다 그랬는데 향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홍보했는지도 또한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려운 토론회니까 충분히 밝히시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릴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조항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장원 후보께서 반대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형태로 말씀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19만 8천평을 당시에 의회에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소한 포천시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포천시를 경영하려면 수도권정비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국가균형특별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접경지원법이 뭔지 알아야지 이 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포천시라는 이 도시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의 현안문제고 동북부의 현안문제고 지금 현재에 포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포천이 아까 우리 서장원 후보께서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낙후됐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해결해야지만이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가지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최소한에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의제나 아니면 집행부가 평소에 시정을 이끌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하자면 군사시설보호법과 상수원보호법과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도 모르고 운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에 관련된 이런 문제하고, 법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서장원 후보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 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찬기 후보님의 질문 차례입니다.

▶**무소속 홍찬기 후보** : 예, 상호간의 대화를 들어보니 배울게 많습니다. 박윤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계획을 작년 12월달에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신도시가 포천에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신도시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전철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바라지 않을 시민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시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국가 단계에서 확정됐을 때 발표해야 그동안에 시민의 불편이 없습니다.

이 계획을 미리 계획단계에서 먼저 발표해버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불편과 고민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전부 문을 닫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설됨으로 인해서 그런 데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이미 검토가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홍찬기 후보님 박 후보님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무소속 홍찬기 후보** : 예.

▶**사회자** : 박윤국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홍찬기 후보님께서 작년 10월에 신도시사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2월에 발표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발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아마 보도한 걸로 그것을 오해하고 발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사업은 물론 국가사업도 되겠지만 지금사업은 과거에 우리가 관선시대에서 지방자치시대로 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뛰어넘어서 지방경영시대에 도래했고 과거에 국가가 지방을 만들어 줬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이 국가를 만들어내는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저희 시가 핵심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포천시가 인구 16만 갖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빼고 어르신네들 빼고 뭐 여러 가지 빼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를 다 공장에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포천이라는 도시가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에 35만 이하의 인구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도시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부가 물론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국가산업이 유지되고, 반대로 경기도지사인 손학규 지사는 기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100대 기업을 유치하고, 또 반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더라도 저희가 이런 신도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다른 포천시에 경쟁력 있는 도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신도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언론에서 그냥 정보를 입수해서 포천이 이런 도시가 될 거다 이런 속에서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홍찬기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1분 30초 질문하시구요. 답변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2번째 질문에 대한 거지요?

▶**사회자** :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 질문하십시오. 어느 후보에게 묻는다든지

▶**무소속 홍찬기 후보** : 지금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이 계획이 발표됨으로 해서 금년 5월 말인가 완료되는 포천시 전역에 걸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여부가 연장이 되는지 해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끼쳤는지, 또 지가상승은 물론 이 토지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받는 포천지역의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는가 여쭸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마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우리도 박 후보님.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예, 우리 홍찬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업무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를 활용하는 공간 또 활용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래량이라든가 이것을 정부 건교부에다 저희가 올리면 건교부에서는 당시의 토지거래한 금액에 대해서 20% 이상 상승하게 되면 토지거래 투기지역이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들과 저희들도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내고 또 전년도에는 제가 건교부장관인 추병직 장관을 직접 독대를 해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지방선거 5.31 지방선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할 것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선거가 5월 30일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이후에 그동안의 토지 거래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건교부 산하의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할 꺼다, 안 할 꺼다라는 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윤국 후보님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을 3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서장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포천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포천시가 발전하려면 아까 43번 국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43번 교통량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만약에 43번 국도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재임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자** : 서장원 후보님 답변해 주시지요.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43번 국도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43번 국도의 이런 교통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은지, 그것을 만약에 서장원 후보께서 그동안에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 다음에 제가 재임이 된다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이끌어 나가가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우선 교통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우선,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번 도로에 대한 대책은 아까 발언에서도 홍찬기 후보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은 700억, 900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축석에서 하송우리 구간까지 기존 도로가 아닌 미개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만든다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두분이 가지고 있는 실마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서장원 후보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우선 홍찬기 후보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못받아서 아까 무소속 출마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마음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홍찬기 후보님 답변해 주시지요.

▶**무소속 홍찬기 후보** : 과거에 둘도 없던 서장원 동지, 저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을 위해 여기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모두 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한나라당 우리지역 포천시장 공천 과정은 금품수수설과 더불어 밀실공천 결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증거를 가진 게 없고 다만 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검사 조치가 되었으니까 확인이 되겠지만 그 외의 여러가지 설은 낭설이 불가하고 다만 저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시민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몇몇 사람이 앉아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당내 문제는 더 이상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신도시 건설보다 첨단산업단지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박후보님의 견해는?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인구 35만 이하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한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송우리택지개사업의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서후보님이 의장으로 재직시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승인했는지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택지개발사업으로 외부인구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천시 안에서 인구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32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무소속 홍찬기 후보

신도시개발계획 계획단계에서 발표함으로써 발생한 시민의 불편과 고민에 대한 보상책은?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포천시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발표한 사항이며 경제력이 있는 포천시 건설을 위해 필요하 사업이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한나라당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 출마 배경은?

무소속 홍찬기 후보

몇몇 사람이 앉아서 공천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